

## 교과교실형 학교의 공간구성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Spatial Organization of School which Designed to the Department System

류 호 섭\*

Rieu, Ho-Seoup

## 1. 들어가면서

최근 교육과학부에서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과교실제의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있는 것 같다. 돌이켜 보면 1990년대 중반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대한 발표 이후, 이미 교과교실제의 운영을 전제로 한 공간구성으로 건축된 학교들도 상당수 있었다.<sup>1)2)</sup> 그러나, 실제로 교과교실형의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는 서울의 사립학교인 한가람고등학교와 극히 일부의 공립학교(부분적 혹은 변형적인 교과교실형의 운영)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과거의 습관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모처럼 제공된 공간을 사용하지 않거나 변형시켜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의 보고도 있다.<sup>3)</sup> 아울러 최근에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교과교실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보다는 우선 시행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앞서 언급한 결과의 학교들이 대량으로 등장할 것 같기도 하여 심히 염려스럽다.

이 교과교실제의 운영이란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었으며, 일본에서도 부분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는 것은 문헌이나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서 운영

하여오고 있던 방식은 특별교실형의 운영이다. 즉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실험이나 실습이 필요 없던 것으로 여겨졌던 교과는 보통교실, 그리고 과학이나, 미술, 음악 등의 교과는 특별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학교에서 교과교실형의 운영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 마디로 각 교과를 배울 학생들이 그 교과별 교실로 이동하여 학습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면 왜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그 필요성을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학생들의 학습효과, 혹은 사회적 또는 교육적 환경의 발달에 따라 학습방법 등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다.

이 필요성에 따라 운영방식이 변화하여야 한다면, 다음으로 관심사는 그러한 변화에 대응한 학습공간은 어떠한 요소와 구성을 가진 공간으로 되어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본 원고에서는 이상으로 언급한 관점을 가지고, 일본에서의 시행 사례로부터의 여러 의견과 그러한 공간구성을 가진 학교들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교과교실형의 운영 및 공간구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아울러 우리나라의 학교들에 대상(신축, 기존 학교들의 증개축)으로 하여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필자의 의견을 서술하고자 한다.

## 2. 교과교실형 운영의 필요성 및 의미

이미 흔한 이야기가 된 것이지만 미래 사회는 다양한 사고와 가치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는 사회이다.

\* 정회원, 동의대 건축학과 정교수, 공학박사

1) 류호섭, 중학교 평면구성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9권 제2호, 통권 31호, 2002. 3

2) 류호섭, 고등학교 평면구성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9권 제1호, 통권 30호, 2002. 1

3) 류호섭 외, 수준별 이동식 수업에 따른 고등학교 평면구성 변화에 대한 분석,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6권 제3호, 통권 70호, 2009. 5

따라서 그러한 사회에서 활동할 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하는 자주적 학습능력(문제해결능력)을 키우게 하는 교육 및 학습 방법이 필요하고, 학교와 교사(教師)는 이를 위한 보조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는 기존의 특별교실형 운영에서 탈피한 교과교실형의 학교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교육계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교과교실형의 운영을 하면, 그 효과로서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 신장되며,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의 자율운영과 더불어 교육 경쟁력이 강화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행정 위주의 학교 운영체제가 교과수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 맞춤형으로 교육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다<sup>4)</sup>

자료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이미 1950년에 교과교실형 운영을 염두에 둔 학교가 건설되었고, 그 후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교과교실형 구성의 학교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오키나와(沖縄)현의 구시가와히가시(具志川東) 중학교라고 한다.<sup>5)</sup> 이후 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서서히 새로운 교과교실형의 공간구성을 한 학교가 확산되어 가기 시작했고,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중·고등학교가 각 각 약 50개교 정도라고 추정된다(일본에서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교과교실형의 공간구성을 하고 있지만, 단위제 운영의 학교라고 중학교와 구분하기도 한다.).

이 교과교실형의 학교를 건축하면서, 일본에서도 역시 교과교실형 운영에 대한 찬반과 기대, 우려가 교차하며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최근에는 중고등학교의 교육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인식되고, 그 학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는 중·고등학교를 신축하거나 전면 재건축하고자 할 때는 대부분의 학교가 이 교과교실형의 공간구성으로 설계하고, 그에 대응한 학교의 운영방식, 교육과정의 편성, 교사들의 연수, 앞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의 견학 등이 일상화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교과교실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의 보고를 통해, 이 운영의 의미와 장단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교과지도의 측면으로 보면 ①각 교과교실에는 교과의 성격이나 내용에 맞는 학습환경의 정비가 가능하다.

②그로 인하여 학습의욕이 높아간다 ③수업준비가 쉽다 ④다목적 공간(미디어 공간) 등의 활용에 의해 과제 해결적 학습이나 개별지도가 가능하다는 것과 교과교실 간의 이동에 따라 ①교실이동이 기분 전환이 되고, 학습의욕이 높아지고 ②학급·학년을 넘어서 교류가 활발하게 된다는 것을 장점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 등에 반하여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교과경영에 관한 내용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교사의 의식개혁이 필요하고 ②교과에 따른 분위기 조성이 어렵다 ③ 열린 교실은 소란스럽다는 등이다. 다음으로는 학년·학급경영에 관한 것으로 ①학급의 친구들이 모임 장소가 없다 ②학급이나 홀룸 교실에서의 귀속의식이 약하다 ③홀룸교실은 교과교실과 병용을 위한 시간표 작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교실이동에 관한 문제로 ①이동 시의 혼잡과 이동에 시간이 걸린다 ②학생들의 관리가 어렵다 ③학생들의 소지품의 관리가 어렵다 ④책상이나 의자 등의 물건의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sup>6)</sup>

그렇지만, 오히려 교과교실형의 공간구성이 오히려 학생들의 거주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니이까다(新潟)대학의 西村伸也교수의 연구<sup>7)</sup>도 있다.

이러한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교과교실제에 대한 염려는 한 단계 줄어든 것 같고 이제는 각 학교들이 교과교실형 공간구성의 교사를 어떻게 활용하여 수업개선을 할까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 교과교실형의 운영은 크게 ①학생들의 학력 ②교사의 수업개선 ③학생들의 학습태도와 의욕 ④학생들의 사회성의 향상이라는 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3. 교과교실형의 공간구성

교과교실형의 운영이란 것은 학생들이 교과별의 학습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하여 문제해결 방법을 배우게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운영방식의 변화에 따라 교사의 공간구성방식도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4) 박영숙, 교과교실제 추진과 전망, 교육개발 2009 Vol.36, No.2  
5) 屋敷和佳, 教科教室制の變遷と學校運營等の課題, 文教施設協會誌 2004년 여름호

6) 米澤市立第6中學校, 日黒區立中央中學校, 日立市立駒王中學校, 打瀬中學校, 聖籠中學校 등의 학교 운영 보고서 참조  
7) 西村伸也, 居場所選擇と移動に見る生徒の行動特性について-打瀬中學校(教科教室型)・聖籠中學校(特別教室型)のケーススタディー-

### 3.1 학교 전체의 공간구성

학교 전체적으로 보면 도서실과 컴퓨터실, 그리고 시청각실을 하나의 미디어센터로 학교의 중심적 위치에 구성하고, 학생들의 거주공간인 홈 베이스가 각 층의 중심적 위치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용빈도가 높은 교과별로 중앙에 가깝게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학교의 공간구성은 우선, 학생들의 주제 혹은 단원에 따른 학습을 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즉, 접근성이 좋은 중심 공간에 미디어 공간을 집약시키고자 하는 의도의 공간구성이다. 이는 교과교실형의 운영을 의도한 학교만이 아닌, 모든 학교에 적용하여야 할 공간구성의 기본적인 지침이라고 하겠다.

한편, 교과교실형의 공간구성에는 크게 2종류의 공간구성이 있다. 그 첫 번째의 방식으로는 모든 교과별로의 전용교실을 가지게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최근 일본에서 많이 보이는 사례임과 아울러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전통적인 교과교실형의 운영방식이기도 하다. 아울러 최근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자 운영방식이며, 이미 일본의 영향을 받아 1990년 후반의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대비하여 건축된 학교들의 공간구성이다.

다음으로는 교과라는 단위로의 구성이 아니라 「생활계」 「언어계」 「자연계」 「예술계」 등의 관련 교과를 종합하여 카테고리화한 「계열교과교실형」의 구성을 가진 공간구성이다. 이러한 방식의 예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앞서의 교과교실형의 방식보다는 주로 일정 규모의 학생을 집단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며, 주로 통합교과의 성격을 가진 과제를 가지고 학습하는 데 적합한 공간구성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공간구성을 학년별 혹은 관심 영역별로 혹은 세분화하여 하나의 클러스터 방식으로 구성하면 결국, “학교안의 학교(school within school)”의 공간구성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교과교실형의 운영이 특별교실형의 운영에서 교과의 전문화를 추구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면, “학교안의 학교(school within school)” 방식은 교과교실형에서의 단편적이고 전문화된 지식의 습득위주가 아닌 종합적이며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전문화된 교과의 벽을 허물고 교과의 벽을 넘어 보다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8)

일단 본 고에서는 첫 번째로 언급한 모든 교과의 전용

공간을 가지는 교과교실형의 공간구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 3.2 새로운 공간의 종류

그리고 교사의 공간구성에서는 이제까지 운영되어 온 학교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공간들이 있는데, 이들 공간들의 명칭과 용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1) 교과교실 : 각 교과별로의 학습공간을 말하며 교과별 주당 시간수와 학년별 학급수, 학생 정원(학급당), 교실의 이용률을 계산하여 교실 수를 정한다. 각 교과교실에는 교과별로 필요한 자료를 게시하거나 하여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교과의 성격이나 전문성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즉, 교과나 단위, 그리고 과제별로 필요한 게시나 전시 공간을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표 1. 각 교과별 실 수 산정 방법

구분	내용	설명
N	교실의 특별교실 및 교과교실의 필요 수 $N = \frac{\sum_{\text{학년}} A \times B \times C}{D \times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의 기술, 가정, 과학 등은 교과의 내용이나 분야에 따라서는 이 이상의 교과교실이 필요하다.</li> <li>• 소수점 이하는 위로 올리거나 모아서 교과 공용의 다목적 교실을 설치한다.</li> </ul>
A	해당 특별교과의 학년별 주당 평균수업의 시간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교의 과학이나 예술계는 과목별로 시간수가 요구된다.</li> <li>• 중·고등학교에서는 선택교과의 수업 시간 수를 고려한다.</li> </ul>
B	학년별 학급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고등학교에서는 기술·가정, 예술, 체육 등의 교과목은 남녀별 수업을 위한 편성으로 학급수가 많은 경우가 있다</li> <li>• 선택제나 탄력적인 학습집단 편성에 따라 학급의 편성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li> </ul>
C	총족률(A안에 특별교실로 행하는 수업시간 수/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족률은 교과·학년에 따라 다른 것에 유의한다.</li> <li>• 교과교실형의 경우는 100%가 필요하다.</li> </ul>
D	주당 수업시간 수	• 각 교과 수업시간 수의 합계
E	교실이용률의 상한(교실의 사용 가능 수업시간 수/D)	• 상한선을 80% 정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

2) 미디어 공간 : 교과별로의 미디어 공간을 설치하여 교과교실과 연계하여 다양한 학습집단이 사용하게 하기 위한 공간이다. 즉, 개인, 혹은 그룹이 이 공간을 사용하여 과제 학습 등의 다양한 학습을 전개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 학생들의 작품이나 교과별 자료 등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교실 1개~1.5개 규모의 크기이지만 학습

8) Lorne McConachie의 5인, Architecture for Achievemant. Building patterns for small school learning, 2007, EAGLE CHATTER PRESS

을 전성적·개할 수 학습수에 따라 그 규모를 달리 할 수도 있다. 이 미디어 공간의 구성이수 크기를 결정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교구이다. 다양한 학습활동을 위해서는 여러 형태·규모의 테이블, 의자, 학생들의 작품 전시장소, 학습을 전개할을 이해를 위한 게시장소, 학토론 장소, 학그룹학습이수 개인 학습이 가능한 공간 학캡션 도크기 등을 비치할 수 있는 교구와학그를 위한 공간의 마련이 절대적으로 교과별 자 이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미디어 공간은 과거 열린과해서는 지향하였던 초등학교의 오늘술 현황D크기알 수 있듯이 단지 빈 쓸모없는 공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은 자명별 자

3) 교과별 교사연구실 : 각 교과별로의 공간 속에 교사연구실을 설치하여 교과 담당 교사들이 생활하게 한다. 물론 교사 개인별의 연구실을 마련한 학교는 없다.9) 따라서 기존의 교무실은 교과별로 분산되고, 교과를 담당하지 않는 교사들은 교감선생님과 같이 학교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교무 센터라고 불리는 공간에서 근무하게 된다.

4) 홈 베이스 : 학생들이 교과교실로 이동하면서 학습하므로, 과거의 학급교실에서의 개인별 책상과 의자가 없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정감이 크게 결여될 우려가 크다. 이런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생긴 공간이 홈베이스로서, 학급별 홈 베이스를 기본 유니트(일반적으로 0.5교실 규모)로 하여 ①학년단위로 구성(目黒區立中央중학교 등)하거나 혹은 ②각 교과교실별로 분산시켜 설치(카리다스(カリタス)여자중학교고등학교, 港區立六本木중학교 등)하는 2가지의 방식이 있다. 따라서 이 홈베이스에는 학생들의 사물함과 게시판, 책상(그룹 혹은 개인)을 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2가지 방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이나 교과교실형의 운영, 그리고 공간 사용의 유연성이란 측면에서 잘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까지의 설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에서 최근 건축된 교과교실형 운영의 학교사례를 사진이나 도면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1) 메구로 구립 중앙중학교

이 학교는 동경도의 메구로구(目黒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생수의 감소로 3개교의 중학교를 통합하여 2008년 2월 신축된 공립 중학교이다.

이 학교는 학생수 15학급 492명(특수학급 학생 13명 포함)으로 ①도심의 좁은 부지에 교과교실형 중학교의 계획 ②전원 착석형의 흐름의 계획 ③교과교실에 ICT기기를 탑재하는 전 교실 시청각화 ④학습센터의 설치(1층) ⑤에코 스쿨로의 계획 및 디자인을 주로 하여 계획되었다.

이 학교의 특징 중의 하나는 ①1층의 도서실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학습센터(휴식시간이나 방과 후의 학생들의 공간으로 과제나 복습, 정보검색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설치라는 점과 ②흐름(일반적으로는 홈 베이스라고 불리지만 이 학교는 아래의 용도를 감안하여 도면에 흐름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생각함)의 공간이다.

이 중 흐름 공간은 도면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층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있는 것은 다른 학교들과 유사하지만 1실당 면적이 50㎡로 다른 학교들의 홈베이스(약 1/2 교실 면적으로 35㎡ 전후)보다 넓다. 이렇게 넓은 면적을 확보한 것은 학생들의 안정된 학교생활을 위해 학급단위로 아침의 조회와 저녁의 종례, 점심식사(대신 식당이 없음, 점심은 도시락 지참이나 매점에서 구입) 등을 할 수 있게 하기 이유였다. 즉, 학교 전체의 학습은 교과교실형의 학교로 운영하되, 학급이란 행정 및 생활 집단은 유지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함이 이 학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그림에서도 알 수

3.3 교과교실형의 학교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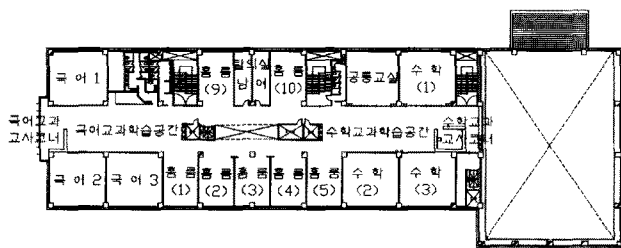


그림 1. 메구로 구립 중앙 중학교의 평면(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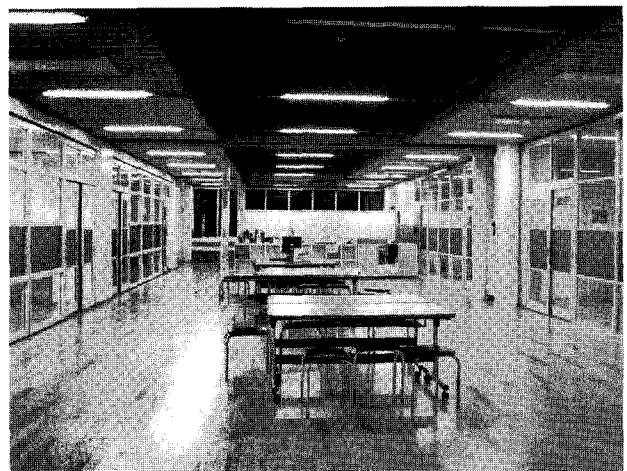


그림 2. 메구로 구립 중앙 중학교 교과학습공간(미디어 공간)

9) 미국의 경우는 과학교사의 경우 개인별로 연구실을 배당한 고등학교도 있다(시카고에 있는 Prairie school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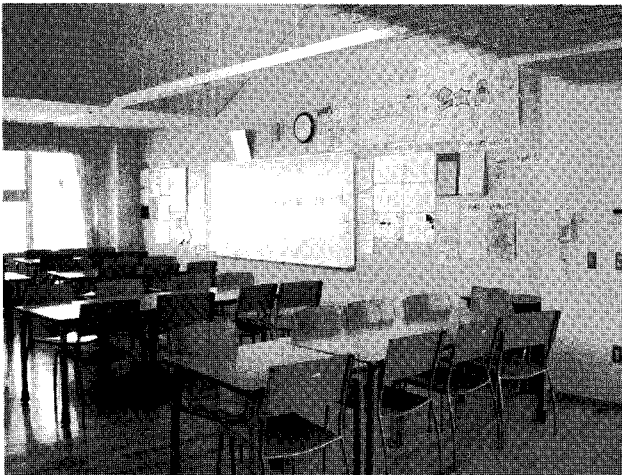


그림 3. 메구로 구립 중앙중학교 홈룸(정보게시 면)



그림 4. 메구로 구립 중앙중학교 홈룸(사물함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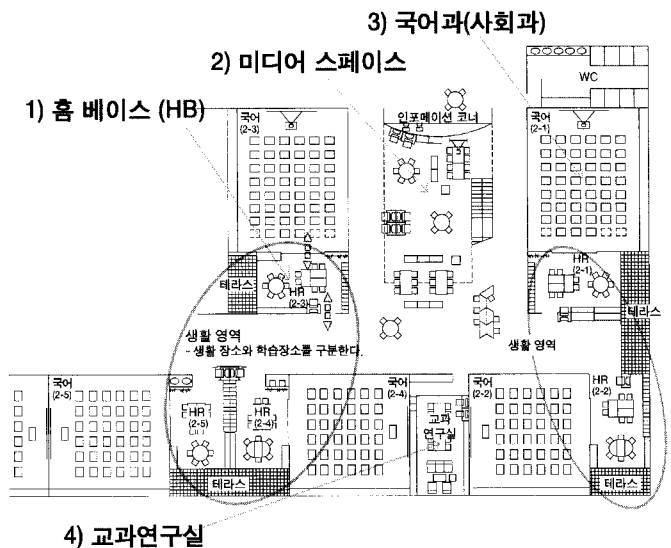
그림 5. 메구로 구립 중앙중학교 교과교사코너

있듯이 홈룸의 좌우에 국어교과 영역과 수학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교과 영역의 중앙에 오픈된 교과교사의 코너와 교과별 학습공간(미디어 공간)이 위치하고 있어 전형적인 일본의 교과교실형의 배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

다.

### 2) 카리타스 여자 중·고등학교

이 학교는 동경과 인접하고 있는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가와사끼시(川崎市)에 있는 사립 여자 중·고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2007년 7월에 완성된 학교로서 중·고등학교 합하여 전체 30학급의 규모이다. 학교의 운영은 중고등학교 전체가 일관제 학교(즉 7학년에서 12학년) 그리고 6개 학년이 교과교실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서, 이 학교의 배치는 각 교과 영역이 클러스터형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은 다른 교과교실형의 학교와 유사하지만, 홈 베이스의 배치에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1) 홈 베이스 (HB)

- 학생 개 개인의 안정된 거주공간이며, 교실과 연결하여 심리적 공간이 되게 한다.
- 학습활동이나 학급의 연락을 위해 칠판(게시판), 교실의 게시물, 장식물 등을 배치하여 학급마다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한다.
- 가정적인 분위기의 인테리어로 한다. 책상, 벤취, 쇼파 등을 설치한다.
- 홈 베이스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그 날의 예정 등을 확인하게 한다.
- 개인 사물함을 설치한다. 신발과 학교에서 필요한 운동화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한다.

### 2) 미디어 스페이스

- 교과교실에 연속한 위치에 미디어 스페이스를 설치하고, 교과영역을 구성한다.
- 교과의 학습 목표를 적합한 교재, 학습미디어를 준비하고 학생들의 작품전시를 한다.
- 탄력적인 집단구성, 다양한 학습집단에 대응하기 위한 책상을 준비한다.
- 이동식의 컴퓨터 접속 가능한 프로젝터를 교과마다 보유한다.

### 3) 국어과(사회과) 교실

- 교실 안 혹은 교실 앞에 게시나 전시면을 확보한다.
- 인접한 실을 신경 쓰지 않으며 토론 할 수 있게끔 차음성능을 확보한다.
- 교탁에 정보 기기의 사용을 위한 콘센트를 설치한다.
- 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수업도 가능하도록 시청각 기능을 충실하게 한다.
- 프로젝터의 시청을 위하여 암막설치도 한다.

### 4) 교과연구실

- 미디어 스페이스에 인접한 장소에 교재의 보관, 교사의 작업· 협의 등을 위한 교사연구실을 설치한다.
- 카운터는 아래 부분은 수납 공간으로 처리 한다.
- 미디어 스페이스가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있게(유리 마감)하지만, 블라인드 등을 설치하여 차단할 수 있게 한다.

그림 6. 카리타스 여자중고등학교의 국어(사회)교과영역설명



그림 7. 카리스타 여자 중고등학교 국어교과미디어센터



그림 10. 카리스타 여자 중·고등학교 영어교사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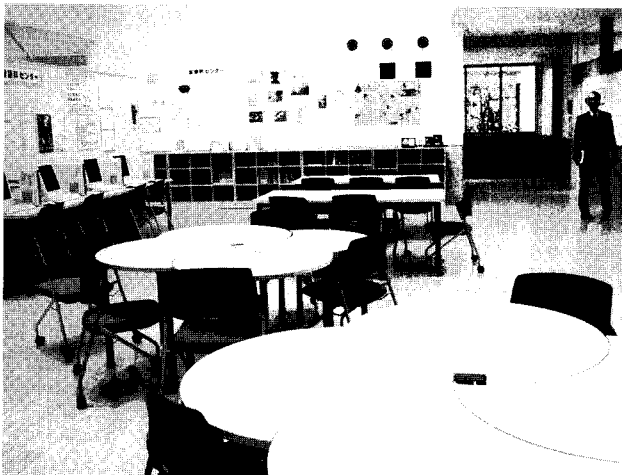


그림 8. 카리스타 여자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 미디어센터



그림 11. 카리스타 여자 중·고등학교 홈 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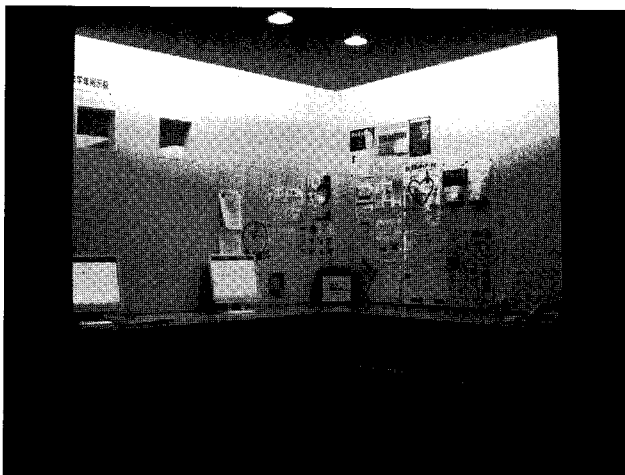


그림 9. 카리스타 여자 중·고등학교 게시코너

<그림 6>은 이 학교의 교과영역(2층의 국어 및 사회교과)의 공간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각 교과교실과 홈베이스, 교과교사연구실, 교과 미디어 스페이스가 집약되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각 영역의 구체적인 설명은 그림에 표기되어 있음).

홈베이스의 위치가 앞서의 메구로구립 중앙 중학교의 평면과는 달리, 각 교과교실 옆에 1개 학년의 5개 홈베이스가 분산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홈베이스는 학생 전원이 정하여진 중앙 위치에 집약되어 있지 않고, 교실과는 미닫이문으로 차단하게 하지만, 평상시에는 교과교실과 일체화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처리한 것이 인접시켜 배치하였다.

#### 4. 국내의 현황 및 대책

##### 4.1 신축된 학교 현황

앞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부터 2000년까지 제7차 교육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교과교실형의 학교가 비교적 많이 건설되었다. 여기서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이후부터는 일선 학교들의 반발과 아울러 모처럼 건설된 교과교실형의 학교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부터의 낭비라는 인식에 따라 기

존의 특별교실형의 학교가 다시금 건축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2002년 필자가 조사하여 보고한 논문(10)(11)을 참고하여 보면, 이 기간 동안 교과교실형으로 신축된 중학교는 전국에서 약 45개교, 고등학교에서는 21개교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교과교실형으로 건축된 학교들을 대상으로 각 학교가 실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조사한 연구(12)를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원래의 설계의도, 즉 교과교실형의 운영에 따른 공간의 사용이 아닌, 학급교실만을 사용하며 영어와 수학 위주의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하고 있는 현황으로 나타났다. 즉, 건축공간의 구성과 사용상태가 서로 맞지 않는 상태임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아래의 그림은 부산의 개성 중학교의 평면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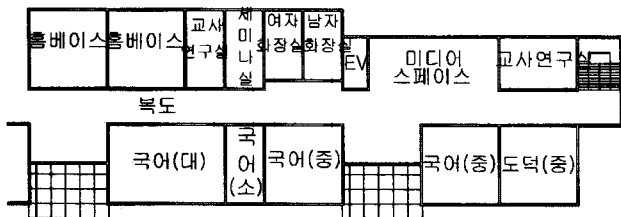


그림 12. 개성중학교(부산, 1999년)

#### 4.2 기존의 학교(특별교실형의 학교)에 대한 대책

앞서 우리나라에서 교과교실형으로 신축된 중·고등학교의 수에 대하여 언급하였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그 수는 매우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종래의 특별교실형 운영의 공간구성을 가진 상태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기존 학교들의 증·개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국내의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13)(14)를 한 보고서에서 한 사례를 인용한 것이 <그림 13>이다.

- 10) 류호섭, 중학교 평면구성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9권 제2호, 통권 31호, 2002. 3
- 11) 류호섭, 고등학교 평면구성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9권 제1호, 통권 30호, 2002. 1
- 12) 류호섭 외 1인, 수준별 이동식 수업에 따른 고등학교의 평면구성 병화에 대한 분석, 제16권 제3호, 통권 70호, 한국교육시설학회지, 2009. 5
- 13) 류호섭 외 3인, 제7차 교육과정 학교시설 모형 연구(충남교육청), 한국교육시설학회, 2001. 1
- 14) 류호섭 외 3인,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기존 고등학교 시설 기본 모델 개발 연구(광주시교육청), 한국교육시설학회, 200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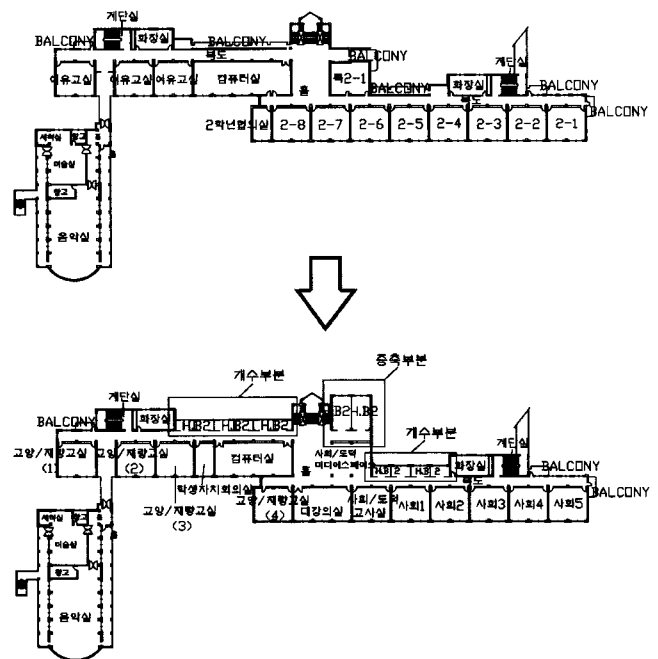


그림 13. 광주제일고등학교의 증·개축 계획안

대상 학교는 광주시의 광주제일고등학교의 평면으로 상단은 기존의 평면이며, 하단은 이 학교를 교과교실형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을 때의 증개축의 계획안이다.

당시 광주 제일고등학교는 26학급으로서 건축면적이 8,687.7m<sup>2</sup>이었으나, 이 계획으로는 9,674.3m<sup>2</sup>로 증가한 상태가 되었다. 당시의 계획지침은 ①각 교과별 교과교실형의 공간구성 ②학년별 홈 베이스 ③현재와 같은 특별교실형의 운영도 가능 ④기존의 실 의치 및 사용을 최대한 유지의 지침을 가지고 작업한 것이다. 이 지침을 바탕으로 3개의 평면안을 작성하였는데, 이 평면은 그 중 1개의 평면중에서 3층 평면도이며, 그림의 중앙 부분에 증축부분과 개수부분을 나타냈고, 각 실들의 크기를 조정하고, 실 배치를 다시 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기존학교들의 증개축에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학교마다의 건축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모델적인 평면 유형을 제시할 수 없다. 아울러, 기존 학교에서 ①교사동의 배치와 평면 유형 ②교사동별로의 구조 안전성 및 건축년도 ③향후의 학생수 변화와 여유교실 발생 현황 및 예측 ④증개축 범위와 개수의 범위 ⑤교사동 주변의 여유공간(일조권 및 증축부분의 바다 면적 확보를 위해)을 반드시 고려하며 작업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싶다.



## 5. 나가면서

이상으로 교과교실형 운영의 실시배경, 실시의 장단점, 학교의 공간구성의 방향, 실제의 국내외의 사례, 기존 학교들의 리모델링의 사례 등에 대하여 언급해왔다.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보면 대 규모라고 할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과교실형 운영의 시행은 확실적인 어떤 특정한 공간구성을 한 모형을 보급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운영 방식의 모델에 따른 공간구성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중 카리스타와 같이 일반적으로 대규모인 경우는 이 교과교실형의 운영이 어렵다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앞서의 카리스타 여자 중·고등학교는 30학급의 규모이다. 물론 그 외의 조건(교사수, 운영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규모가 30학급이라 해도 교과교실형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과교실형의 운영은 다양한 교육방법에 따라 전문적인 자료나 설비를 갖춘 교과교실과 미디어 공간 등을 활용하면서 학생들에게 학습능력을 키우게 하는 것을 의도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즉 교사와 학생들의 학습방법 및 태도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변화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보수적인 집단이고 오랜 습관에 익숙해져 온 교육계에서의 변화 혹은 개혁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운영방식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이념 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단순히 공간구성만을 바꾼다고 하여 교과교실형의 학교 운영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운영을 바꾸는 의미, 추구하고자 할 가치, 사회적 그리고 교육적 방향을 잘 인식한 상태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교사들이나 학교의 운영관계자들에게 이 점을 충분히 인식시키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 1990년대 초반, 교사들의 반발에 직면한 열린 교육운동이 사실상 좌초한 것처럼, 자칫 모든 학교가 모든 교과교실을 만들고 그 안에서 우열반편성을 하고 일제식 수업을 하는 오류가 발생되지 않기 위한 정책 제시나 교사 연수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1. 류호섭, 중학교 평면구성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9권 제2호, 통권 31호, 2002. 3
2. 류호섭, 고등학교 평면구성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9권 제1호, 통권 30호, 2002. 1
3. 류호섭 외, 수준별 이동식 수업에 따른 고등학교 평면구성 변화에 대한 분석,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6권 3호, 통권 70호, 2009. 5
4. 박영숙, 교과교실제 추진과 전망, 교육개발 2009 Vol.36, No.2
5. 屋敷和佳, 教科教室制の變遷と學校運營等の課題, 文教施設協會誌 2004년 여름호
6. 米澤市立第6中學校, 目黒區立中央中學校, 日立市立駒王中學校, 打瀬中學校, 聖籠中學校 등의 학교 운영 보고서
7. 西村伸也, 居場所選擇と移動に見る生徒の行動特性について-打瀬中學校(教科教室型)・聖籠中學校(特別教室型)のケーススタディー
8. Lorne McConachie 외 5인, Architecture for Achievemant. Building patterns for small school learning, 2007, EAGLE CHATTER PRESS
9. 류호섭 외 3인, 제7차 교육과정 학교시설 모형 연구(충남 교육청), 한국교육시설학회, 2001. 1
10. 류호섭 외 3인,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기존 고등학교 시설 기본 모델 개발 연구(광주시교육청), 한국교육시설학회, 2001. 5
11. School Amenity. 2008.04 Vol. 23/No. 265, 보이ックス
12. School Amenity. 2009.01 Vol. 24/No. 274, 보이ックス